

동시대 관통... '공간' 속 생동하는 모든 존재들의 '울림'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추천 작품 9選

'판소리, 모두의 울림' 핵심 주제인 '인류세' 형상화한 작품 인간·기계·영혼 등 모두가 공유하는 '관계적 공간' 재사유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펼쳐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30개국 72명의 작가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50일을 앞둔 지난 19일 '판소리, 모두의 울림'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인류세'를 형상화한 작품을 선정, 공개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인간·기계·동물·영혼·유기 생명체 모두가 공유하는 우리의 '관계적 공간'을 재사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트야 노비츠코바

알고리즘 시대 이미지의 논리와 작동을 탐색하게 만드는 노비츠코바의 작품은 생물학과 인간의 진화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과학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의 이미지를 GIF로 조합한 작품은 야생동물의 사진, 천문학, 달팽이 배아, 원숭이 혈액 세포 등이 빠르게 교체된다. 이러한 이미지 과잉에도 작가는 시적인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려고 한다. 작가는 AI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 이미지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픽셀화된 매트릭스에서 생물을 인식, 이름을 지정했다. 이때 모순되게도 이 이미지를 보는 유일한 사람은 기계를 훈련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사람뿐이다. 작가는 이미지의 논리와 바이러스, 기계와 사람, 이미지 과잉과 유의미한 이미지 사이 속고를 권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의 분화를 재현한 공간 음향 설치 작품은 지구의 풍경에 대한 기록이며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소리로 새로운 송고함을 형성한다.

맥스 후퍼 슈나이더

슈나이더는 생물 다양성과 역동성이 담긴 풍경으로 우리 시대 다양한 장면을 구현한다. 익숙한 사물과 폐기물, 얼어붙은 산호초를 병치해 인류세의 새로운 꽃과 동물, 생물을 위한 대안 생태계를 보여준다. 쓰임을 다한 물건들은 슈나이더가 형성한 자연으로 작품마다 다른 순간들을 보여주고, 작가의 상상으로 살아난 장면들은 세상의 파괴와 혼란스러움을 품고 또 다른 생명의 지대가 된다.

마르게리트 위모

위모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미래 세계를 관통하는 오래된 것을 발굴한다. 소리·조각·퍼포먼스 등 작업을 통해 인간이 아닌 종의 멸종이나 멸종된 풍경이 남긴 공백을 채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 위모는 '판소리'라는 주제에 맞게 북을 설치 작품의 중심 요소로 두고, 소리꾼 이남치와의 협업으로 소멸한 판소리를 복원한다. 설치 작품 중심에는 유령 같은 형태의 '잠재된 기억의 보유자'가 서 있는데, 이는 한복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예인

1980년대 후반, 기술 산업이 급부상하던 시기 태어난 작가는 결합이 있는 것들이 빠르게 교체되는 사회에서 성장했다. 그의 작업에서 재활용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작가는 주로 컴퓨터 화면이나 자동차 부품 등 버려진 제품 등을 결합해 독특한 조형물을 만든다. 'System of In-between State' 시리즈는 혼종성과 취약성을 상징하는 여러 신체 조각이 어우러져 사이보그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인간과 기술 구조를 결합한 이 조형물은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지, 아니면 쇠퇴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참여 작가들은 개인 거주지부터 행성 지구까지 우리 주위에서 비가시적으로 편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과 감응하는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동시대를 관통하는 주제인 환경, 생태 등을 이야기하는 전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박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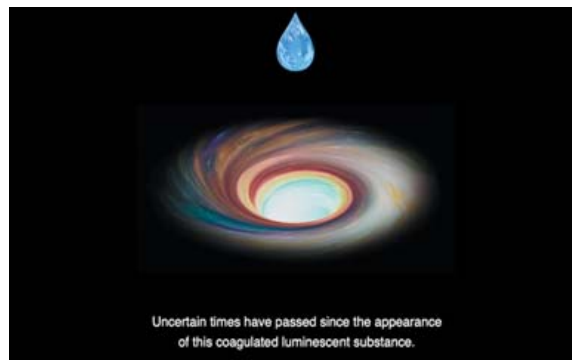


박미미작 'Circuit'

박미미의 설치작품은 각각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전혀 연관성 없는 세계가 서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련 없는 요소들의 연결 지점을 이해하면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은 하나의 연성 회로와도 같다. 주변 소품을 활용해 형성된 작품은 마치 하나의 소우주로 완성돼 다가온다.

조세파 응잠

조각·포도물타주·영화·사운드 작업을 하는 조세파 응잠은 인터넷과 자연과학 서적, 사진 아카이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재조합하며 다양한 기원, 정체성, 인종을 품은 거대 헤게모니를 해체한다. 우주에서 내려온 바다를 낚는 생물 발광 유기체의 이야기를 담은 'Myceaquae Vitae' (2021) 속 내레이션은 과학과 미학 사이 경계와 그 서사를 불분명하게 만들며 현대 공간에 대한 신화와 유토피아에 대해 질문한다.



조세파 응잠작 'Myceaquae Vitae (st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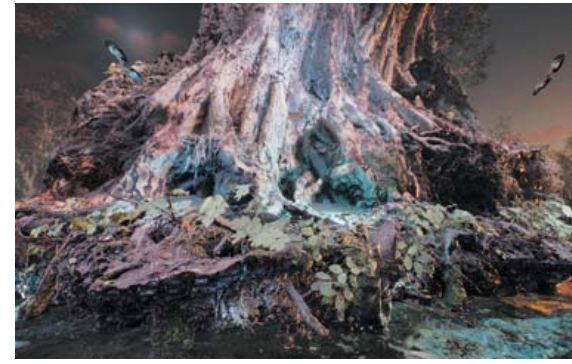
비앙카 봉디



비앙카 봉디작 'The Antechamber (Tundra Swan)'

바닷물을 이용한 화학 반응을 통해 일상적인 사물과 장면이 미시감을 부여하는 비앙카 봉디의 작업은 시각을 넘어서는 경험을 촉진한다. 따로 떨어진 사물들이 기묘한 액체와 하얀 소금 언덕으로 둘러싸여 연결되는 장면은 시각적인 것을 넘어 상호 연결성, 덧없는 삶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이끈다. 작가는 생태학과 오컬트 과학을 결합해 사물의 아우라를 발견하는 작품을 탄생시킨다.

야콥 K 스티센



야콥 K 스티센작 'Berl-Berl'

비디오 게임·가상 현실·사운드 설치 및 몰입형 환경을 통해 환경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스티센은 시적인 생태학적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신작 'Berl-Berl'을 선보인다. 전 세계 대부분 주요 도시는 습지 위 혹은 습지 주변에서 건설되지만, 습지는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서 주목받지 못한다. 작가는 늪을 주인공으로 두고 현대 도심 건설의 핵심이자 기반인 습지에 경의를 표한다. 스티센이 구현한 가상의 늪은 현장에서 반응하는 사운드와 숨쉬고 박동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늪을 다시 보게 된다.

사디아 미르자

사디아 미르자는 조경학·지도학·일반 과학 및 기술·사운드 이미지 매핑을 활용한다. 작가는 빙하학자와 함께 남극의 빙하 충돌 소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 'Iceberg Collisions'를 선보인다. 지진 데이터 속 빙산 아래 깊은 곳에서 발생한 균열에 의해 빙하가 미끄러지고 진동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작품이다. 'B15'라고 불리는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